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가. 연구 현황

최근까지의 동구(東歐)에 대한 연구 현황을 정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구연구가 저서나 논문의 형식을 취하기 보다 시론이나 정책 보고서의 형식으로 발표되었고 또 연구자간의 학문적 교류도 그리 빈번하지 않았으므로 연구가 단편화되어 업적의 추적이 어려웠고 그 때문에 연구결과의 취합은 그만큼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서는 ①연구기관 학회별 ②사회과학의 분과별 ③주제별로 매우 미흡하나마 그간의 한국에서의 동구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 학회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의 교과과정에는 소련 사정(事情) 과목이 개설되었고, 1970년 대학원에는 동구지역연구학과가 석사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이 대학 부설로 소련 및 동구문제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외국어 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학생수가 500명을 훨씬 상회하며 위의 지역학과에서도 20명 이상의 석사를 배출하여 이 지역 연구의 인적 자원을 공급했다.

그러나 외대의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의 연구 역점은 소련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동구연구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면서도 본격적인 동구연구 업적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1972년에 「대소련, 동구체국 접근 방안 연구」, 1972년에 「대소련, 동구권, 교역 확대 방안 연구」등이 있으나 이들 연구는 다분히 용역에 따른 정책 보고서형식이었다. 1982년 이 연구소는 학술지로 「슬라빅 연

*이 글은 안병영교수의 “한국에서의 동구연구의 현황과 전망”(「동구연구」 제1집. 호남대학동구문제연구소. 1984. pp.17-31)을 토대로 하여 84년 이후의 사항만 추가한 것임.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구」를 창간 1987년에 제4집을 내고 있으나 대체로 러시아어 문학 및 소련 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동구에 관한 논문은 아직 수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거의 러시아어에 능통하여 1차 자료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동구연구의 잠재력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1974년 노어(露語) 노문학과(露文學科)가 개설되었고 1979년에는 러시아 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위의 학과와 연구소는 러시아어, 문학에 치중하고 있으나 그 인문학적 잠재력이 우리나라 최대의 공산권 연구소인 이 대학교 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사회과학적 연구능력 및 조직력과 접목되는 경우, 매우 진실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이 성숙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어 1977년에는 한양대학교에 소련문제 연구소가 설립되어 「소련 연구」지를 발행하였으나 1980년에 와서는 중국문제연구소와 통합하여 중소문제연구소로 바뀌고 학술지의 명칭도 「中蘇研究」로 개명했다. 주로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참여하는 이 연구소는 그간 소련에 관한 적지않은 학술적 업적을 내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동구에 관한 연구는 아직 한편도 기록하고 있지 못하다. 1978년 문교부는 한국에서의 공산권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고려대학교의 아세아문제연구소, 연세대학교의 동서문제연구원 및 한국의국어 대학의 소련 및 동구연구소에 재정적인 보조를 시작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동구연구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 맡기어 졌고 이후 4년간 이 지역에 관한 집중적 연구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 연구소 소속의 18명의 교수가 동구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 걸쳐 조직적인 협동연구를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가 「공산주의에 있어서 정책 및 정치과정의 비교연구」 제1, 2, 3, 4집으로 출간되었다. 위의 전 4집에 포함된 논문수가 66편에 달하며 이들 연구는 동구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전문연구라는데 그 의미가 부각된다. 그러나 동서문제연구원의 연구팀들은 모두가 슬라브언어를 비롯한 동구지역 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전공별 사회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 자료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위의 동서문제연구원은 협동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세계의 우수한 동구연구소들과 학문적 교류를 열었고 특히 동구에 관한 기초 통계자료 불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東歐 共產圈 統計 資料集」(安秉永, 李相雨 共編)이 1981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1982년 문교부의 정책적 재정지원이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끊어지자 동서문제연구원의 동구연구(東歐研究)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다. 아직 이 방면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종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하다. 이 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1980년 이래 러시아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아직 학과가 설립되지는 못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 기초 언어(露語 등)의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연계되고 정부 등에 의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는 경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위의 연구원은 체코슬로바키아의 Alois Holub, 독일의 Werner Gumpel, 일본의 Takayuki Ito 및 Tsugus Togara 교수 등을 초청하여 동구에 관한 학문적 교류의 폭을 넓혔다.

동서문제연구원은 또한 서독의 뮌헨대학교의 Institut fü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Ost-und Südosteuropas와 공동주최로 1983년 7월5~7일간 Korean-Germen Symposium on Trade with Socialist Countries를 뮌헨 교외의 Tutzing에서 열은 바 있다.

또한 동서문제연구원은 87년 10월 한·독학술회의에 업저버로 참석한 헝가리 학술원의 벨라·카다르 교수와 제노·하모리 두교수와 학술교류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것이 진전이 되어 동구권 국와는 처음으로 헝가리의 학술원과 정기적인 학술교류에 합의 88년 4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양국의 안보 및 경제문제를 주제로 한 제1차 한국-헝가리 합동학술회의를 갖기로 되어 있다. 이 회의의 개최지는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될 예정인데 2차회의는 89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1982년 호남대학에서는 저명한 동구 연구가인 이태영(李泰永) 학장의 주도에 동서문제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이 연구소는 창립기념으로 “동구 공산권의 제양상”이라는 제1차 국제학술회의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고, '87년에는 “동구의 민족문제”라는 주제의 제4차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 연구소는 이 세미나 결과를 논문집(「동구연구」)으로 해마다 발간해 오고 있다. 앞으로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는 '87년 9월 「사회주의 경제체제 및 개혁」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공산권학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주목을 끌었다. 참가한 주요 동구의 학자들은 유고슬라비아의 Ivan Bicanic, Branko Horvat, 폴란드의 Josef pajestka, Jerzy Wiatr, 헝가리의 Laszlo Szamuely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이 회의는 블란서의 Wladimir Andreff 교수를 비롯한 서방의 공산권 경제전문가들도 참여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행사는 한국 최초의 일이었다.

위에서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기관을 살펴 보았거니와 이외에도 학술적 차원보다는 정책연구와 자료분석의 차원에서 주변적으로 동구연구에 임하고 있는 주요기관으로 외교안보연구원, 국방대학원, 국제문제 연구소, 국토통일원, 국회도서관 등이 있다. 1978년 국회도서관이 펴낸 「동구편람」은 자료로서 유용하다. 이외에도 몇몇 경제연구기관이 부분적으로 동구경제를 다루어왔다. 한가지 기억할만한 것은 해외문제연구소가 1971년 창간하여 1981년 1월에 폐간한 격월간지 「東西經濟」이다. 이 Journal은 매호 평균 2편 이상의 동서관계의 글을 실었는데 주로 동구 무역 현황, 동구의 경제구조 등의 논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대개 소개 내지 해설에 치중했으나 동구경제에 대한 이해를 늘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연구소는 1976년 「東歐 貿易 요람」을 발간한 바 있다. 사회과학에 관한 주요학회 중 동구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찌기 눈을 뜬 학회가 한국국제정치학회였다. 이 학회는 한국에서의 동구연구의 발전을 마련하고자 1972년 학회이름으로 Richard F. Staar 교수의 *The Communist regime in Eastern Europe*(1970년 版)을 번역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동구에 대한 표준적 입문서(入門書)로서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국제정치학회는 1981년 학회 주최의 국제회의에 체코출신의 오스트리아 학자 Friedrich Levcik를 초청하는 등 이 방면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1980년 한국에서의 공산권연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고대 김준엽교수를 회장으로 한국공산권연구협회가 창설되었다. 이 협의회는 그간 국내의 학술회의를 주도하고 6권의 연구논총을 발간했는데 동구에 관한 여러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1983년 이 협의회는 그 하부조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중 소련 및 동구위원회는 현재 17명의 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이 소련 연구학자들이며 동구연구에 역점을 두는 학자는 2~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의 협의회 회원수가 약 135명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공산권 연구 인구의 일부만을 포용하고 있으므로 동구연구에 임하고 있는 비회원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동구연구가중 그 대부분은 스스로 동구연구가로 자처할 수 있는 형편이라기 보다 「동구연구」도 한다는 사람들이다. 명실공한 동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구연구가라면 동구사(東歐史)를 전공한 호남대의 이태영(李泰永) 학장, 동구정치로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성신여대의 이숙자(李淑子) 교수 등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 협의회는 87년 8월 「동구 소련관계와 개혁정치」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10명의 학자들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 회의의 기조연설은 소련정치 엘리트들의 실상을 분석한 「Nomenklatura」의 저자인 Michael Voslensky(서독 현대소련연구소장)가 했다. 이 대회는 소련과 동구의 상호관계를 경제와 외교정책의 측면에서 분석을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분과별 개관

정치학 : 오랫동안 시론적(時論的)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는 단편적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70년대 초 이후 황성모(黃性模), 윤근식(尹謹植), 안병영(安秉永) 교수 등이 이 지역에 대한 지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이들은 서독 내지 오스트리아에 유학한 학자들로서 서구적 지적 배경이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소련 연구학자인 김학준(金學俊)교수가 동구에 관심을 표명했다. 1978년 이후 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원 팀(安秉永, 金達中, 鄭鎭濶, 安秉俊 등)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이밖에 정용길(鄭用吉) 교수가 동구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이정복(李正馥), 이숙자(李淑子), 허만(許漫), 서병철(徐炳哲) 등 제교수가 최근 깊이있는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동구에 관한 국내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은 홍숙자(洪淑子)의 「동구제국의 수정주의와 소련 외교정책과의 관계」(東國大 1975년)이며 1983년에 연세대에서 학위를 취득한 최동희(崔東熙)의 「소련과 동구관계의 형성과 재편성(1945-1959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근년에 들어 대체로 1년에 1편 정도씩 동구정치관계의 박사 학위 논문이 제출되고 있다.

경제학 : 대학 및 대학원 수준의 교과 과정중 비교 경제체제론, 노사관계론 등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구의 경제체제·경제계획과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가 많이 소개된다. 경제학분야의 경우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팀(朴基赫, 尹錫範, 鄭錫泳, 朴振根, 金滉, 李常雨 등)의 연구가 두드러지며 서울대의 최종태(崔鍾泰), 이승희(李承熙) 교수의 논문도 평가된다. 최근 한양대의 안석교(安錫教) 교수도 이 방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학 : 동구사(東歐史)에 대한 전문적 관심은 극히 미약하였으며 이태영(李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泰永)교수의 개척적 연구가 두드러진다. 그에 의하여 한양대에서 「특수지역 연구 : 동구」가 개선된 바 있다.

철학 : 동구학자들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해석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고 동구의 지성문화가 논의되었다(申一澈, 李奎浩, 崔禎鎬교수 등)

사회학 : 연세대의 박영신(朴永信), 오세철(吳世澈) 등이 동구사회의 변동과 문화의 지속문제를 다루었다.

(3) 주제별 개관

한국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동구의 개혁 공산주의 내지 자유화 운동

윤근식(尹謹植), 안병영(安秉永), 정용길(鄭用吉), 이정복(李正馥), 이숙자(李淑子) 등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 주제는 무엇보다 공산주의 체제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을 자극했고 아울러 사전으로 접철된다는 의미에서 현실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②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사회주의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의 반 명제라는 의미에서 깊은 관심을 촉발시켰다. 정치학자, 행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 등이 자기의 시각에서 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다. 최종태(崔鍾泰), 안병영(安秉永), 김황주(金滉岐), 고충석(高忠錫) 등이 기여했다.

③ 소련과 연관한 동구의 외교정책, 외교행태

동구제국의 외교정책의 자주성과 연관되는 이 주제는 국제정치학자들이 동구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연구 대상이었다. 김달중(金達中), 정진위(鄭鎭渭), 안병준(安秉俊), 이숙자(李淑子) 등의 논문이 두드러진다.

④ 동구의 관료제화(Bureaucratization)

동구의 정치적 리더쉽의 관료제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안병영(安秉永), 김학준(金學俊)에 의해 주도 되었다.

⑤ 동구의 공산화 과정 및 전라

많은 정치학자들의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⑥ 동구의 경제계획

정창영(鄭暢泳), 윤석범(尹錫範) 교수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⑦ 동구제국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체제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⑧ 동구제국의 무역

2. 연구 과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동구연구의 문제점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동구연구의 지적 하부구조를 쌓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주요한 것이 동구의 역사문화론적 기초 연구이며 무엇보다 언어(露語, 세르보크로아트語등)에 대한 수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초없이 동구연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구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강좌가 거의 개설되어 있지 못하며 이를 전공한 자의 수도 한 두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구의 오늘을 바르게 또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매우 미약하다. 정규적인 교육과정속에서 동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으며 다만 서양사 강좌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동구사가 스치듯 다루어지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속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이에 대한 지적관심이 자극될 소지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구에 대한 인문학적 바탕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동구어에 대한 교육 내지 수련도 매우 중요하다. 한 지역이나 나라의 사정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그곳의 언어를 해독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구연구에 임하고 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영어에 의존하거나 일어, 독어, 불어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노어(露語)를 비롯한 슬라브어와 기타 동구지역어를 통한 서적은 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原典)을 통한 일차적 연구는 불가능하며 그 때문에 자칫 외국 연구를 소개하는데 그치거나 외국 학자의 지적 편견을 답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므로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어 및 기타 동구지역 언어 교육을 확산시켜 동구에 관한 사회과학연구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동구연구를 여러해 동안 주도해온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원의 연구 스태프 중 슬라브어를 해독하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동구연구의 한계를 뜻한다. 적어도 동구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대학교나 대학 연구소에는 슬라브어 학과나 슬라브어 교육 과정이 함께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있어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본격적으로 동구연구에 임하려는 초학자의 경우 스라브어를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지역연구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 동구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학자들은 그 대부분이 지역연구 전문가로 출발한 학자들이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학, 경제학 등 전공연구에 종사하다가, 그 지적 관심을 동구로 전향하게 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아직도 스스로 자신의 전공을 동구연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말하자면 여지(餘技)로 동구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정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로 부터 동구연구의 학문적 개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 기존학자들에게 동구연구의 지역전문가의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동구연구를 위한 전문적 여건의 조성, 연구방향의 설정 등의 역할을 맡기거나 혹은 자기 전공분야와 연관하여 연구범위의 확대, 방법론의 세련화, 제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화등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이들 기존 연구자들은 또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안출하는데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존학자의 개척적 역할을 경시하지 않으나 문제는 이들 만으로 한국에서의 동구연구가 국제적 수준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시급한 것은 동구지역연구를 일생의 업으로 바치려는 제2세 지역전문가의 계획적 양성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동구연구의 지적 하부구조를 전수하고 그들의 전공에 따라 일상적이며 심층적인 연구에 임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치학의 역점을 둔 지역 연구자인 경우 ①스라브 언어 및 이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바탕위에서 ②비교공산주의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기초를 굳건히 한 후 ③전공과 연관해서 지역적 통성을 높여야 하며 ④가능하면 동구제국 중 일정국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축적할 것이 요망된다. ⑤아울러 동구정치에의 이해를 위해 매우 긴요한 소련에 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될 것이 기대된다. 많은 지역연구가가 양성되어 동구에 관한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때 동구에 관한 지식도 축적되고 연구수준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연구가들이 수적, 질적으로 성장되면 여러분야의 전공학자들도 이들 지역 연구가들의 협조 내지 지원을 얻어 그들 연구의 범위를 지평(地平)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역 연구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나 혹은 양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성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의 소련 및 동구지역연구학과인데 그 교과과정의 역점이 소련에 주어져 사실상 동구문제는 별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는 러시아어과와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가 있으므로 대학원 수준의 지역연구학과가 제기능을 발휘한다면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 밖에도 고대, 한대 및 특히 연대의 경우 정부나 대학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주어지는 경우 동구의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전문가가 양성되는 경우에도 일할 자리가 문제된다. 실제로 동구 전문가를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우수한 자질의 초학자(初學者)가 지역연구에 뜻을 두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양성도 그 수요가 확대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체로 동구의 지역연구가가 교수로 충원되는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크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소도 그리 마땅치 못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의 전망이 별로 밝지 못하다. 현재로 볼 때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정부가 동구연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길이다. 정부가 연구지원과 더불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구지역전문가의 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양성된 인력의 취업에까지 관심 쓴다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동구연구가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데서 오는 역기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비정부적 차원의 이니시아티브를 기대 하기가 수월치 않다. 이런 과정에서 불행히 최근(88년 1월)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련 및 동구와의 교역증대, 증진 방안을 분석하는 「공산권 연구원」의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동구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동구연구와 관련하여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구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는 일이다. 실로 자료없이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자료의 빈곤은 동구연구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다. 이는 물론 무엇보다 재정의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이외에 이 방면에 대한 지적 정책적 관심의 부족도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동구에 관한 서적이나 자료는 대체로 불문문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소장하는데 얼마간의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 밖에도 도서 분류 전문가의 빈곤때문에 동구자료가 영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뚜렷하게 분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동구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의 경우 이 방면 장서가 고작 1,300권 정도이니 우리나라에서의 동구연구의 어려움은 너무나 뚜렷한 것이다. 최근 외교안보연구원에 이 방면 서적과 자료 및 저널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한 수준에 이르기에는 이른다. 이 밖에도 동구자료는 불온문서 취급인가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접근이 허용되며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등 부수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일반 학자들이 이 방면 서적에 접하려면 별도로 취급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학원 학생 이상의 전문적 연구자에게는 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므로써 이방면 연구의 저변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네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국과의 지적 교통이다. 외국의 연구추세에 접하고 방법론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는 외국 연구기관과의 학문적 교류를 심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 통교(通交)는 지속적, 조직적, 학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전시용(展示用)으로 외국학자를 초청하는데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한국 학자들이 직접 동구제국을 여행하며 조사 연구하거나 그곳에서 동국학자들과 교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외국의 국제회의에서 그들과 접촉 교류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지적 교류를 하는 방법도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동구문제의 외국 학회나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한국학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2년마다 모이는 Congress on Soviet and East European Studies에는 적어도 한두명의 학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일본의 The Japanese Society for Slavic and East Studies의 연례총회 등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와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소련 및 동구연구소는 일본의 Hokkaido대학 The Slavic Research Center와 비교적 잦은 접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는 독일 뮌헨대학교의 Institut fu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Ost-und Sukd-Osteuropas와 매우 긴밀한 연구 협조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몇몇 학자들이 독일의 Institut fur Ostwissenschaftlich und Internationale Studien과 가까운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 한국에서의 동구연구 현황과 과제

끝으로 한국에서 동구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구에 관한 모든 연구를 보다 조직화하는 일이다. 현재 동구에 관한 연구는 극히 비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연구가 상호간에 누가 무슨 연구를 하며 어떤 업적이 나왔는지에 대하여도 서로 잘 모르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나마 지식 및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는 단편화(斷片化)된다. 그러므로 동구에 관한 연구 내용이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류하고 단편화된 연구를 조정 통합하기 위한 신경중추(神經中樞)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산권연구협의회 내의 소련 및 동구분과가 앞으로 미흡하나마 이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동구연구가 조직화 되는 경우 각 연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연구자료 빈곤 문제도 얼마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구연구를 보다 조직화하는 경우 지적 협력 체계의 구성이나 제한된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똑같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